

조범현 감독 16억 재계약

3년간 연봉 3억5천만원 합의 KIA 내년시즌 준비 가속도

KIA 타이거즈 조범현 감독이 3년간 총액 16억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조범현 감독은 26일 김조호 단장과 만나 계약금 5억5천만원, 연봉 3억5천만원 등 총액 16억원에 3년간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끈 SK 김성근 감독(3년 총액 2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산 김경문 감독(3년 총액 14억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그동안 조 감독과 구단측은 3년 계약을 기본으로 해서 김성근 감독과 김경문 감독의 계약금액을 놓고 장기전을 벌여왔다.

‘우승팀 감독으로서 쉽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KIA는 김경문 감독보다 2억원을 더 제시하는 조건으로 조 감독과의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한 달 가까이 감독의 재계약이 성사 되지 않으면서 더디게 진행되던 KIA의 2010 시즌 준비가 속도를 내게 됐다.

2기 ‘조범현호’ 출범을 위한 개편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군 선수단이 우승여행을 다녀오는 대로 황병일 수석코치를 중심으로

하는 코칭스태프의 개각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선 10월 김중호·김봉근·이광우 코치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 뒤 김정수 스카우트가 투수코치로 보직이동 됐고, 히어로즈에서 백인호 코치가 새로 영입됐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보직을 받지 못했다. 선수 유니폼을 벗은 최경환도 2군 타격코치로 정식 임명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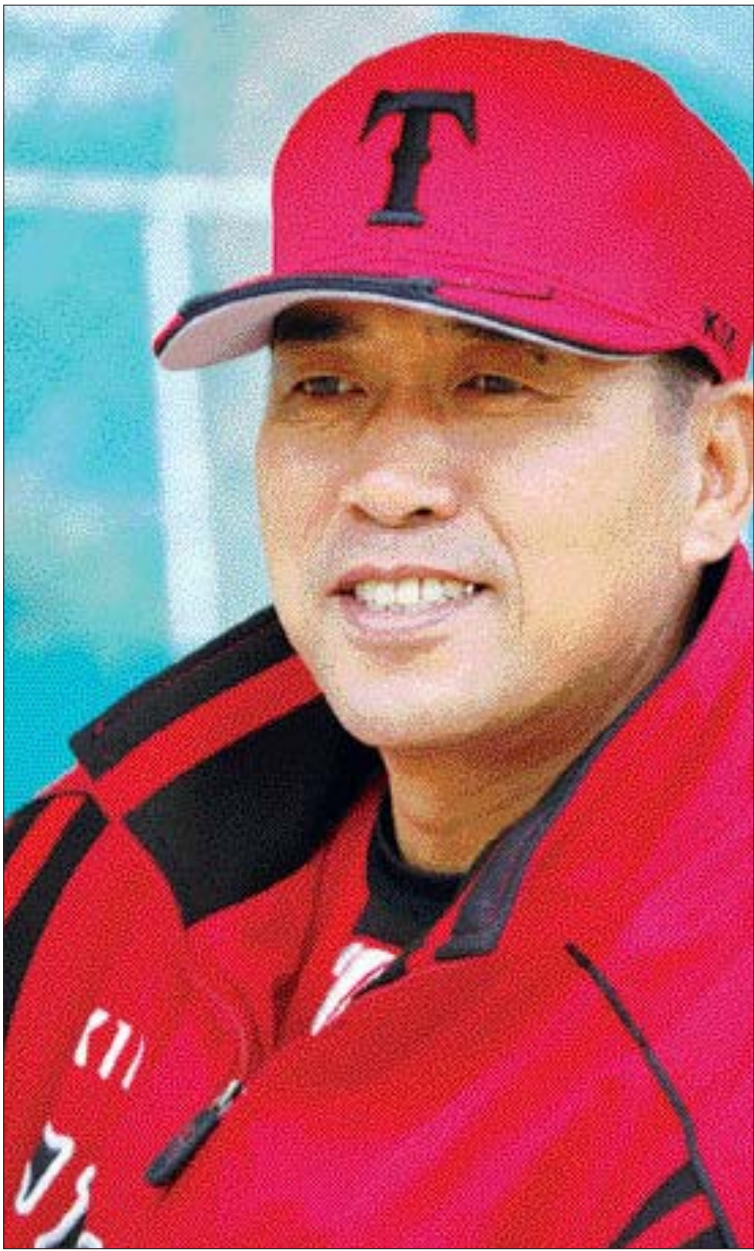
감독의 재계약 논의가 끝나면서 선수단 연봉협상 테이블도 본격적으로 꾸러진다.

조 감독의 행보도 빨라졌다. 조 감독은 한일클럽챔피언십이 끝난 뒤 감기와 장염으로 1주일 가량 병원 신세를 졌었다. 건강 악화와 재계약 문제로 우승여행을 떠나지 못했던 조 감독은 26일 남해 마무리 캠프를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조 감독은 재계약을 마무리 지은 뒤 2군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바로 남해로 출발했다.

조 감독은 28일까지 진행되는 남해 캠프에서 훈련상황을 점검 한 뒤 내년 시즌 구상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일은 장미란의 날

역도 사상 세번째 세계선수권 4연패 달성여부 관심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26·고양시청)이 세계 여자 역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미란은 28일 오후 7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부 최종량급(+75kg) 경기에 출전한다.

2005년부터 3년 연속(2005, 2006, 2007)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한 장미란은 이번이 우승하면 여자 역도 사상 보기 드문 4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작년에는 올림픽이 치러진 해라 세계선수권대회 가 열리지 않았다.

1987년부터 시작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4연패를 이룬 선수는 중국의 리아취안(1990년~1993년)과 탕웨이강(1995~1998년) 두 명뿐이다. 올해로 77회를 맞은 남자 역도에서 나온 최다 연속 우승은 8회.

올림픽을 포함해 5년 연속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여자 선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장미란의 우승 여부에 전 세계 역도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장미란의 우승 전망도 밝다.

장미란은 지난 9월 일본에서 3주간 실시한 전지 훈련 도중 용상에서 190kg을 들어 올렸다. 어깨 위

까지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용상 첫 번째 동작인 클린(clean)에서는 195kg까지 성공했다.

용상 190kg은 자신이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세웠던 세계신기록(186kg)보다 4kg이나 더 나가는 중량이다.

지난달 전국체전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326kg)에 16kg 모자라는 합계 310kg을 들었지만, 세계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을 조절한 측면이 강하다.

유력한 맞수로 예상되는 중국의 멩수핑(20)은 지난달 열린 중국 전국체전에서 합계 313kg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합계 기록은 장미란의 최고 기록보다 13kg이나 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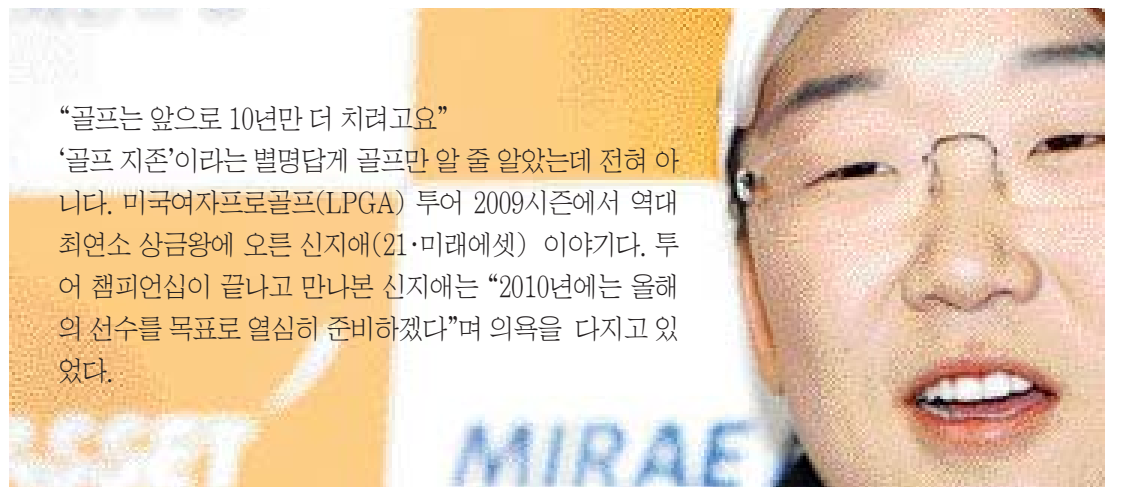
김기웅 여자 역도대표팀 감독은 “멍수핑이 중국에서 두드러지고는 있지만 아직 신인”이라면서 “지금 장미란이 한 수 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장미란도 이번 우승에 강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마무리 훈련에 집중하고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 태릉선수촌에서 ‘나 홀로 특훈’을 진행했다.

김 감독은 “당일 컨디션을 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장미란이 인상에서는 욕심을 내지 않고 용상에서 세계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체급에서는 역도 기대주 이희술(20·한국체대)도 함께 출전해 입상권 진입을 노린다.



/연합뉴스



“골프는 앞으로 10년만 더 치려고요”
 ‘골프 지존’이라는 별명답게 골프만 알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에서 역대 최연소 상금왕에 오른 신지애(21·미래에셋) 이야기다. 투어 챔피언십이 끝나고 만나본 신지애는 “2010년에는 올해의 선수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겠다”며 의욕을 다지고 있었다.

“골프 10년만 더 치겠다”

■ ‘지존’ 신지애 인터뷰

-시즌이 끝났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게 가장 하고 싶다. 하지만 한 일정이 있어서 연습을 또 해야 할 것 같다.
 -미안하지만 마지막 리운드 경기 이야기 좀 해보자. 아버지(신재섭 씨)는 경기 끝난 뒤 ‘왜 17번 홀에서 핀을 직접 노렸느냐고 아쉬워하던데.
 ▲나도 선수인데 그랬겠느냐. 오른쪽을 보고 친 건데 바람의 영향을 받았다. 그때 내가 모험을 걸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2010년 목표는 당연히 ‘올해의 선수’인가.
 ▲아무래도 그렇다. 시즌이 끝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미국 투어에 적응된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투어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2010년에는 일본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프로야구 KIA가 우승한 것에 대해 기뻐했다던데.
 ▲아버지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다. 호주에서 훈련하면서 호주오픈 테니스대회도 가봤고 이번 겨울에는 농구 경기장도 가보고 싶다.
 -김연아 선수는 광고도 많이 찍는데 왜 신지애 선수

는 없나.
 ▲그냥 열심히 골프만 치려고 그런 건 가보다. (웃음) 또 골프 선수들은 스폰서들이 있어 광고에 다소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올해 수입이 꽤 많을 것 같다.
 ▲얼마인지는 나도 모른다. 상금을 미국과 일본에서 받았고 계약금에 인센티브까지 있으니 적은 돈은 아닐 것 같다. 그러나 관리를 아껴가 하시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다.
 -그럼 용돈을 받아서 쓰나.
 ▲작년까지 우승하면 100만원, 보기 없이 라운드를 마치면 아버지한테서 100만원씩 받았다. 2008년에는 국내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보기 없이 끝낸 적도 많아서 아마 용돈을 거의 2천만원 넘게 받았던 것 같다.
 -용돈을 받아서 주로 어디에 쓰나.
 ▲술 일이 사실 별로 없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곧 동생과 함께 카페를 하나 열 생각이다.
 -부업을 시작하는 건가.
 ▲사실 골프를 오래하고 싶지는 않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10년을 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할 생각이다. 주위에선 ‘내가 그때 정말 그만두면 내가 손목을 자른다’고도 하지만 내가 그때까지만 쳐도 지금까지 10년, 앞으로 10년 해서 20년간 골프를 치는 것이다.

/연합뉴스

“내겐 다이어트보다 골프가 중요”

■ 지애, 미니홈피 글 화제

LPGA 신인왕·상금왕·다승왕 등 올시즌 3관왕을 차지한 ‘골프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의 정신적 롤 모델(role model)은 미국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일까?

신지애가 최근 자신의 미니홈피에 도널드 트럼프의 사진과 글을 게재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신지애는 도널드가 자신의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를 적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 선수로서의 고충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신지애는 먼저 트럼프를 “세계 갑부 중 한 명인 사람”이며 “머리스타일을 보면 특이하다”고 소개했다.

신지애는 “트럼프의 독특한 헤어 스타일 때문에 주변에서는 바꾸라고 자주 권하지만 절대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기 스타일을 더욱 고집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헤

어스타일을 바꾼다면 난 그만큼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 절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잘 새겨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난 예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다”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의 공인으로서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좋은 성적을 냈을 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골프에 재미와 열정, 정신력, 모든 것을 쏟았을 때”라고 말했다.

또 신지애는 “다이어트... 성형... 스물두살의 여자로서 원하고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속마음도 털어냈다.

하지만 그는 예전 9킬로그램 감량했을 때 경기력이 떨어졌던 것을 떠올리며 “결과가? 그해 망했다. 운동선수로서의 정신적인 고통이 더 괴로웠다”며 “난 아직 운동을 10년 더해야 한다. 아니 더 할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난 내 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골프장 서비스 평가 KS인증제 도입

지경부 오늘부터 시행

골프장의 서비스를 심사해 국가표준(KS)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9홀 이상의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으로, 제도 시행은 한국표준협회가 맡고, 인증을 받을지는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

그러나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대외적으로 KS 인증마크를 쓸 수 있어 상당수 골프장이 인증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증심사는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nt.com

본점: 0662-227-9940
 수원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충청점: 082-227-9970
 부산점: 061-851-2422